

# TV 드라마 <일리 있는 사랑>의 환유와 은유 읽기

김금숙\*

1. 서론
2. <일리 있는 사랑>의 서사 구조
3. 드라마에 대한 환유적 소비 - 불륜과 시월드
4. 드라마에 내포된 은유 읽기 - '출산성'
5. 결론

## 국문요약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TV 드라마 <일리 있는 사랑>에 대한 환유와 은유 읽기를 통해 이 드라마의 총체적 의미를 고찰하는 것이다.

이 드라마의 주요 서사는 일리와 희태의 서사, 일리와 김 준의 서사, 일리와 희태와 김 준의 서사, 일리와 시댁 구성원들과의 서사 등 네 가지로 구분된다. 이들 주요 서사는 불륜과 시월드에 대한 환유로서 시청자들에게 소비된다.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에 초점을 두고 소비됨에 따라 드라마 속의 사랑이나 성장담은 공감을 얻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이 서사들은 '출산성'에 대한 거대한 연쇄 은유이기도 하다. 은유적 관점에서 보면 김 준은 일리와 희태의 아이이다. 김 준으로 인해 일리와 희태는 비로소 아내와 남편으로서의 자리를 찾고, 전파 가능한 두 번째 삼각형을 구성한다. 드라마에서 출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

\* 강원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사

점에서 출산성에 대한 은유는 우리 사회의 출산 기피 현상과도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환유와 은유의 복합적인 읽기를 통해 본 이 드라마는 현대 사회에서 출산이 불륜이나 시월드 같은 인접한 다른 것들로 대체되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의미 있는 텍스트이다. 이 드라마는 우리에게 사람이 없는 사랑은 불가능하며, 타자로서 서로를 인정하고 진정한 둘이 되어야만 출산도 가능해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낸다. 이상의 논의가 드라마를 이해하는 방식에 변화와 발전을 불러오는 작은 단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TV 드라마, 〈일리 있는 사랑〉, 환유, 은유, 불륜, ‘출산성’)

## 1. 서론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TV 드라마 〈일리 있는 사랑〉의 주요 서사들에 내포되어 있는 환유와 은유에 대한 복합적 읽기를 통해 이 드라마의 총체적 의미를 고찰하는 것이다.

〈일리 있는 사랑〉은 고등학교 때 만난 선생님과 결혼한 여자 주인공에게 뒤늦게 첫사랑처럼 설레는 상대가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이 드라마는 종합편성채널에서 방송됐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이나 언론 매체로부터 적지 않은 관심을 받았다.<sup>1)</sup> 이에 반해 불륜을 미화한다, 공감하기 어렵다, 분위기가 너무 무겁다는 등의 이유로 작

---

1) 방송 첫 주에 〈TV인터넷관심도-주간 리포트〉에서 TV 프로그램 부문 2위를 차지하였다. 미디어기획팀, 『독특한 감성의 드라마 ‘일리 있는 사랑’에 관심 집중』, 『경향신문』, 2014.12.9.

품에 대한 평가가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 드라마는 불륜을 다룬 실패한 막장 드라마로만 회자되고 지나가기에는 은유적인 함의의 무게가 적지 않은 작품이다.

TV 드라마는 현대 사회에서 매우 큰 영향력을 지니는 예술 장르이다. 이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슷한 상황이다.<sup>2)</sup> 특히 우리나라는 ‘드라마 왕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소비되고 있다.<sup>3)</sup> 그 중 성공한 드라마들은 한류(韓流)를 이끌며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서 다른 나라에 수출되고 있다. 덕분에 한국은 21C에 들어서면서 세계 각국이 벌이는 문화 경쟁에서 어느 정도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 방송사의 시청률 경쟁 속에서 시청자의 욕망을 자극하기 위해 비상식적인 억지 설정을 동원한, 소위 말하는 ‘막장 드라마’<sup>4)</sup>들이 많아지고 있다. 막장 드라마들은 형편없는 작품성으로 인해 비난과 비판을 받는 동시에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많은 패러디를 양산하는 등 화제성을 발휘하며 논란의 중심이 되곤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막장 드라마에서 자주 사용하는 소재가 등장하기만 해도 막장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기 일쑤이다. 그 대표적인 소재가 불륜이고, 〈일리 있는 사랑〉 역시 이러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런데 사실 불륜은 비단 드라마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대중들에게 인기 있는 소재 중 하나이다. 문제

2)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극은 사람들 사이의 가장 강력한 전달 수단이 되었다. 오늘날 모든 산업 국가의 사람들은 극적 전달에 둘러싸여 있다. 마틴 에슬린, 『드라마의 해부-극작법 서설』, 원재길 역, 청하, 1987, 15쪽.

3) 정수연, 『드라마 맛있게 읽기』, 복인, 2008, 19쪽.

4) 막장 드라마는 진부하고 통속적인 설정들을 하나의 드라마 안에 모두 가지고 있거나 유치하고 설정이 제멋대로인 드라마를 말한다. 김민주, 『2010 트렌드 키워드』, 미래의창, 2009, 151쪽.

는 소재 자체가 아니라 그 소재를 얼마나 극적인 요소로 잘 활용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불륜이라는 소재에 가려져서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한 〈일리 있는 사랑〉의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는 일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TV 드라마는 언어 텍스트인 극본을 예술적, 기술적으로 형상화 한 서사물이다.<sup>5)</sup> 이는 서사물의 담론적 특징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문학의 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드라마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음을, 즉 문학 분석의 방법들이 드라마 분석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말해 준다. 물론 이 과정에서 드라마의 영상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TV 드라마의 전달 방식인 영상은 배경을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매주, 매일 같은 시간대에 연속적으로 방송하는 형식을 통해 드라마의 서사는 특별한 현실성을 획득한다.<sup>6)</sup> 그리고 드라마는 TV나 컴퓨터, 스마트 폰 등을 통해 언제든지 편하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시청자들은 그 이야기를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인 것처럼, 혹은 내 이야기인 것처럼 느끼며 빠져든다. 이러한 현실성, 동시성, 친근감 등으로 인해 TV 드라마는 대부분 인접한 것-시청자의 현실 속 무엇-들로 미끄러지면서 환유적으로 소비된다.

야콥슨의 견해에 따르면 산문은 근본적으로 인접성에 의해 발전되기 때문에 비교적 저항을 덜 받는 방식인 환유가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sup>7)</sup> 이는 드라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드라마를 읽을 때도 환유적 의미에 초점을 두게 되는 경우가 많다. 서사 맥락

---

5) 배우가 극본을 연기로 표현하는 것은 예술적 형상화의 과정이고, 이를 영상으로 담아내서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기술적 형상화의 과정이다. 김대행, 『방송의 언어문화와 미디어 교육』,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124쪽.

6) 마틴 에슬린, 『드라마의 해부-극작법 서설』, 원재길 역, 청하, 1987, 146쪽.

7) 로만 야콥슨, 『문학 속의 언어학』, 신문수 역, 문학과지성사, 1989, 116쪽.

과 인접해 있는 우리 현실 속의 구체적인 것, 특수하고 개별적인 것들로 옮겨가면서 드라마를 이해하고 소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의미론적으로 볼 때 일반적인 언어활동에서는 은유적 방식과 환유적 방식이 끊임없이 혼재되어 나타난다.<sup>8)</sup> 이는 문학 작품이나 드라마 같은 예술 텍스트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하나의 텍스트 속에는 실제적으로 은유와 환유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비유에만 초점을 두고 읽을 경우 그 서사가 지니고 있는 비유적 의미를 전체적으로 읽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sup>9)</sup> 특히 드라마는 영상을 통해 상황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거나 장면을 이미지화함으로써 문자로 서술하는 소설에 비해 강한 은유성을 지닌다. 따라서 드라마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하려면 드라마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은유를 함께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은유에 초점을 두고 읽으면 텍스트가 지니는 의미의 보편성에 접근하게 된다. 은유는 “언어 밑바닥에 깔려 있는 심층적 논리를 기초로 연관성을 찾아내는”<sup>10)</sup> 것을 가능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 즉 “추상적이고 본질적인 성격이 강한” 은유와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역사적 사건과 맞닿아 있”<sup>11)</sup>는 환유를 함께 고려하면서 읽을 수 있다면 작품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영상 서사물인 〈일리 있는 사랑〉이 대중들에게 환유적으로 소비되는 측면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드라마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은유적 의미를 찾아내어 환유와 은유의 복합적 읽기를

8) 로만 야콥슨, 『문학 속의 언어학』, 신문수 역, 문학과지성사, 1989, 110-111쪽.

9) 야콥슨은 많은 연구자들이 은유와 환유를 단절시켜 한 가지 경향만을 문제 삼아 논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10) 김옥동, 『은유와 환유』, 민음사, 2004, 266쪽.

11) 김옥동, 『은유와 환유』, 민음사, 2004, 268쪽.

시도할 것이다.

## 2. 〈일리 있는 사랑〉의 서사 구조

드라마 〈일리 있는 사랑〉(연출: 한지승, 극본: 김도우)은 종합편성채널 tvN에서 2014년 12월 1일부터 2015년 2월 3일까지 총 20부작으로 방송된 드라마이다.

드라마의 내용을 바탕으로 회차별 서사의 흐름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sup>12)</sup>

- 1화(명태)-병원에서 포경수술을 하고 나오던 희태는 엉뚱한 여고생 일리와 부딪쳐 인연을 맺는다. 그리고 임시 생물교사로 간 여학교에서 UFO를 믿는 4차원 소녀 일리를 다시 만난다.
- 2화(소주)-일리는 희태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희태는 제자인 일리를 밀어내려고 애쓰지만 잘 안 된다. 유학을 떠나게 된 희태를 찾아간 일리는 교통사고의 위기에서 희태를 구하며 중태에 빠진다.
- 3화(냄새)-유학을 마치고 7년 만에 돌아와 수산연구소 연구원이 된 희태는 폐인 트공이 된 일리를 다시 만나고 우여곡절 끝에 결혼한다. 그 후 7년, 갑자기 쓰러진 희수를 비롯한 시댁 식구들 치다꺼리를 하며 정신없이 살아가던 일리는 작업장에서 김 준을 만난다.
- 4화(촉감)-함께 일하던 김 준과 일리는 묘한 감정 대립으로 신경전을 벌인다. 자기도 모르게 김 준에게 마음이 쓰여 그의 주변을 맴돌던 일리는 과호흡증후군으로 그의 눈앞에서 쓰러진다.
- 5화(전화번호)-김 준은 일리에게 돌발 키스를 한다. 희태는 가구를 주문하려고 공방에 들르지만 김 준은 주문을 거절한다. 누군가 일리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희태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기 시작한다.
- 6화(눈물)-일리가 편히 쉴 수 있는 의자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주문을 받아들인 김

---

12) 괄호 안에 있는 것은 각 회차별 부제이다.

- 준은 희태와 함께 재료를 고른다. 희수를 빗속에 방치하여 시어머니에게 따귀를 맞은 일리는 김 준을 찾아와 그 동안 억눌렀던 눈물을 쏟아낸다.
- 7화(소풍)-김 준은 가구 배달을 핑계로 일리를 데리고 소풍을 떠난다. 덕분에 일리는 7년 만에 일상에서 벗어나 자유를 즐긴다. 희태는 휴대전화로 받은 사진들로 인해 일리와 김 준의 관계를 의심한다.
- 8화(폭풍)-일리가 소풍을 즐기는 동안 희수는 의식불명 상태가 되어 응급실로 실려 간다. 괴문자로 인해 일리에 대한 의심이 깊어진 희태는 그녀를 미행하다 그녀와 김 준이 포옹하는 모습을 목격한다.
- 9화(바다)-일리는 희태에게 두 사람 다 좋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이혼을 결심한 희태는 이혼 서류를 남기고 집을 나간다. 희태의 첫사랑이었던 선주는 괴로워하는 희태를 위로하다가 속마음을 고백한다.
- 10화(입장)-희태는 희수의 새 간병인을 구한다. 김 준이 희태와 만나 왔다는 것을 안 일리는 김 준에게 화를 낸다.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희태와 김 준은 술에 취해 몸싸움을 벌이다 경찰서로 끌려간다.
- 11화(쓰레기)-경찰서로 달려간 일리는 두 사람 모두의 보호자임을 자처하고, 상황을 정리하려 삼자대면을 하지만 갈등은 더 깊어진다. 아들의 이혼 소식을 들은 희태 모(고 여사)는 충격을 받는다.
- 12화(님, 남)-일리는 친정으로 가고, 김 준은 일리와 제대로 된 연애를 시작하려 하지만 희태에 대한 미련이 남은 일리는 김 준과 거리를 둔다. 선주는 감기에 걸린 희태를 정성스럽게 보살핀다.
- 13화(쇠사슬)-이혼 서류를 접수하려던 일리와 희태, 그리고 김 준은 해고 위기에 놓인 일리 엄마의 연락을 받고 농성 현장으로 간다. 일리는 희태의 마음이 궁금하고, 김 준은 환영받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깨닫는다.
- 14화(고등어)-일리의 상처를 더듬어보게 된 희태는 일리에게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지만 일리는 거절한다. 마음을 추스르고 일상으로 돌아온 일리는 공사장에서 김 준과 마주친다. 고 여사는 치매 증상을 보인다.
- 15화(화투)-희태는 일리가 고 여사의 치매를 알지 못하게 하려 노력한다. 일리는 일상에 충실하며 김 준과 데이트도 즐긴다. 치매에 걸린 고 여사는 김 준을 젊은 시절의 희태 부로 착각한다.
- 16화(구렁텅이)-희태는 휴식을 하고 어머니를 돌보는 데 전념한다. 고 여사의 상태를 알게 된 일리는 괴로워하고, 김 준은 흔들리는 일리가 불안하다. 희태는 김 준에게 일리를 데리고 떠나라고 말한다.
- 17화(공기)-고 여사의 치매가 점점 심해지자 일리는 고 여사를 돌보기 위해 희태

의 집으로 들어간다. 김 준은 기다려 달라는 말만 하고 오지 않는 일리를 데리고 나오기 위해 희태의 집으로 간다.

18화(지붕)-자신의 상태를 자각한 고 여사는 딸 희수를 죽이고 자신도 죽으려다가 가족들에게 발각된다. 애매한 일리의 태도에 김 준은 화를 내며 떠나 버리고, 여기에 희태가 탄 배의 사고 소식까지 들은 일리는 길에서 과호흡증후군으로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진다.

19화(희수)-희태와 김 준은 생사의 갈림길에 선 일리를 바라보며 지난날을 돌아보게 된다. 희수는 일리의 꿈에 찾아와 배낭여행을 떠난다고 말하고 현실에서 숨을 거둔다. 희태는 진심으로 일리의 행복을 빌며 일리를 떠나보내기로 한다.

20화(된장찌개)-이혼 선물인 의자 때문에 만난 일리와 희태는 오랜만에 마주 앉아 된장찌개를 먹으며 눈물을 흘리고, 그 날을 계기로 재결합한다. 김 준은 어린 시절 자신을 버렸던 생모를 받아들이기로 한다.

이상에서 정리한 서사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드라마 속에서 극을 이끌어 가는 주요 서사는 대략 네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1-3화에서 풀어내고 있는 일리와 희태의 만남과 결혼에 대한 서사이다. 일리와 희태의 서사에는 운명적 만남의 판타지가 깔려 있다. 그래서 상큼하고 발랄하면서도 빠른 이야기 전개 속에 3화만에 만남, 사랑, 결혼의 서사를 완결한다.

둘째는 3-7화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일리와 김 준의 만남과 사랑에 대한 서사이다. 이 부분에서는 TV 드라마라는 장르가 지니는 영상성을 최대한 동원하여 서사를 풀어내는 모습이 돋보인다. 일리와 김 준이 서로를 인식하고 사랑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은 매우 감각적으로 표현된다. 그들의 감정은 피상적인 대사가 아닌 선명한 이미지로 전달된다. 3화에서 서로의 냄새를 맡는 모습, 4화에서 과호흡증후군으로 쓰러진 일리가 김 준의 손을 입에 대고 숨을 쉬는 모습 등이 그것이다. 그들의 사랑에 일리를 담고, 시청자들이 거기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회차



에 걸쳐 꼼꼼하게 감정선을 그려낸 것이다.

셋째는 8-20화에 걸쳐 있는 일리와 희태, 김 준 세 사람에 얽힌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서사이다. 이 부분은 최대한 판타지나 감각적 연출을 걷어낸 사실적이고도 현실적인 전달에 초점을 두고 있다. 희태는 아내의 외도를 알고 이혼을 결심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한다. 일리는 김 준이라는 새로운 사랑에 흔들리지만 가족으로 얽혀 있는 희태와의 관계에도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 김 준은 처음으로 마음을 준 여자인 일리가 남편과 자신의 사이에서 애매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답답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 사람이 연약한 감정에 휘둘리며 구질구질하게 일상을 살아내는 모습을 과장도 미화도 없이 보여준다. 이처럼 드라마에서 불륜은 자극적인 설정이 아닌 일상적인 소재로 녹아들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은 3-18화에 걸쳐서 무게감 있게 다뤄지고 있는 일리와 시택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서사이다. 일리는 결혼 후 7년 동안, 연구에 몰두하며 종종 집을 비우는 희태의 뒤통까지 담당하며 시택 식구들을 뒷바라지한다. 꼼짝 못하고 누워만 있는 희수, 까다로운 시어머니, 바람기로 인해 종종 분란을 일으키는 한량 시아버지, 사고나 치고 다니는 백수 시동생까지 모두 일리가 감당해야 하는 시택 식구들이다. 이 서사에서는 자기 일이 따로 있으면서도, 며느리로, 아내로 고된 삶을 이어가는 일리의 모습에 초점을 맞춘다.

이상의 서사 전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을 하는 것이 희태의 내레이션이다. 이는 영상을 통한 보여주기와 대비되는 말을 통한 들려주기로써, 이 드라마가 지니는 환유와 은유의 이중적인 의미를 부각시키는 장치이다. 내레이션을 통해 희태의 내면의 소리를 들으면서 시청자는 그에게 친밀감을 느끼고, 등장인물들과의 거리를 좁히면서 극에 몰입하

게 된다. 이는 자연스럽게 드라마에 대한 환유적 소비로 이어진다. 동시에 내레이션이 등장하는 순간에는 인물의 행동과 서사의 진행이 중단됨으로써 의미 해독과 성찰의 과정에 집중할 수 있기도 하다.<sup>13)</sup> 이를 통해 드라마의 은유적 의미에도 접근할 수 있게 된다.

### 3. 드라마에 대한 환유적 소비 - 불륜과 시월드

드라마의 첫 번째 주요 서사는 희태와 일리의 이야기이다. 여고 시절 일리는 임시 교사로 온 희태에게 반해서 그와 결혼해야겠다고 마음먹는다. 이러한 서사적 설정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학창시절의 추억과 매우 인접해 있다.

여고의 총각 선생님이나 남고의 여자 교생 선생님은 사춘기의 호기심 많은 학생들에게 늘 로망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사람들 대부분은 학창 시절 선생님을 흠모했던 추억 하나쯤은 가슴에 담고 산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리와 희태의 서사를 통해 자신의, 혹은 친구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그들의 사랑에 쉽게 공감을 느낀다.

그러나 남편이 있는 일리와 외간 남자인 김 준의 서사가 이어지면서 상황은 달라진다. 작가와 제작진은 “단순히 외도나 불륜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색다른 멜로드라마”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첫사랑이 뒤에 오고 마지막에 와야 할 사랑이 먼저 온” 일리의 사랑을 일리 있게 펼쳐 보이겠다고 했다.<sup>14)</sup> 그러나 기획 의도와는 달리 일리와 김 준의 서사가 시작되자 인터넷에서도 언론에서도 ‘불륜’이라는 소재에 대한 공방이 이어

13) 이다운, 『TV드라마와 내레이션』, 『한국극예술연구』, 41집, 한국극예술학회, 2013, 337쪽.

14) tvN 〈일리 있는 사랑〉 공식 홈페이지의 프로그램 소개.

졌다. 일리와 김 준의 사랑은 그냥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랑’이 아니라 ‘윤리적 규범에서 벗어난 어떤 사랑’으로 옮겨가면서 환유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희태가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 채고 본격적인 삼각 구도를 보이는 세 번째 서사에서 극에 달한다.

일리: 이 사람하고 있었던 일 당신이 아는 대로야. 많이 설렸고, 흔들렸고, 문득 문득 나한테 당신이 있다는 생각 안 났고, 그럼 안 되지 하면서도 자꾸 마음이 가고 눈길이 가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짓을 하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그치만 난 한 번도 당신이 내 반쪽이라는 거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 이 사람 때문에 설레면서도 그랬었어. (11화)

술에 취해 몸싸움을 벌인 두 남자의 일로 인해 카페에서 삼자대면을 하면서 일리가 하는 말이다. 두 사람 모두 좋다는 솔직한 일리의 말에 시청자들은 공감 대신 불편함을 표현한다. 일리의 행동은 인접한 주변 사람들의 외도, 기혼남녀를 연결해 주는 불륜 사이트, 유명인들의 스캔들 등 부도덕한 만남에 대한 환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도 굳건히 유지되고 있는 제도적, 윤리적 규범의 관점에서 보면 일리의 두 번째 사랑이 불륜으로 환유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부일처제가 예고된 배반을 안고 있는 모순된 결혼 제도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고,<sup>15)</sup> 결혼을 매개로 이뤄진 ‘가정’이 개인의 고통이나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지켜야 할 지고지순한 가치라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sup>16)</sup> 사회가 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결혼을 바탕으로 한 가족제도는 여전히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이기 때문이다.

15) 이충헌, 『성격의 비밀』, 더난출판사, 2008, 60쪽.

16) 김미라, 『멜로드라마 〈밀회〉의 코드 파괴(code-breaking)와 그 함의 ‘불륜’에 대한 재현 관습을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45집, 한국극예술학회, 2014, 334쪽.

김 준의 공방 간판인 ‘카스타 디바(Casta Diva)’는 오페라 아리아의 제목으로 ‘정결의 여신’이라는 뜻이다.<sup>17)</sup> 5화에서 이 오페라의 줄거리를 찾아본 일리는 “뭐야, 이걸 완전 막장이잖아.”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희태는 “고전은 원래 막장이야. 인간의 본성이 막장이니까.”라고 대답한다. 여기서 보면 희태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욕망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규범적 가치를 매우 중시하는 인물이다.

일리 모의 농성장에서 김 준은 희태와 대비되는 환영받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느끼면서 희태에게 어떻게 하면 환영받을 수 있는지 물어 본다.

희태: 간단해. 규칙을 지키면 돼. 인간이든 짐승이든 짝짓기를 하지. 하나가 하나만 취하든, 하나가 열을 취하든 거기엔 자기들끼리 규칙이 있어. 먹이를 구할 때도 떼를 지을 때도 그게 없으면 생태계는 아수라장이 되니까. 이걸 니가 백프로 지는 게임이야. 어떤 변명을 해도 욕을 먹을 관계고. 웬지 알아? 수천 수만 년 전부터 정해진 규칙이 그렇거든. (13화)

우리 사회에는 하나가 하나를 취하는 규칙이 존재하고, 희태는 그 규칙을 누구보다도 성실히 준수한 인물이다. 그는 아내와의 이혼을 결정한 후에도 첫사랑이었던 선주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김 준은 희태와 일리 부부의 사이를 위태롭게 만든 ‘나쁜 놈’일 뿐이다.

주변을 살펴보면 불륜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니며, 먼 곳에만 있는 이야

17) ‘카스타 디바’는 ‘정결한 여신’이라는 뜻으로, 벨리니(Vincenzo Bellini, 1801-1835)의 오페라 <노르마(Norma)>에 나오는 아리아 제목이다. 노르마는 신성성, 정결함을 대변하는 여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적군인 로마 총독을 사랑하여 두 아이를 낳은 어머니기도 하다. 임지윤, 『벨리니 오페라 <노르마>의 극 중 인물 연구: 노르마의 아리아 분석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24쪽.

기도 아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 혹은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가슴 속에 품고 있는 불륜에 대한 욕망이나 경험들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흔하다고 하는 편이 맞다. 그러나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자기중심적 사고에 익숙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불륜을 너그럽게 보아 줄 마음이 없다.

희태가 일리와 김 준의 관계를 알 수 있었던 것은 희태의 휴대폰에 전송되는 사진과 문자 때문이다. 이 문자는 희태와 일리의 윗층에 사는 박 교수가 보낸 것으로 밝혀진다. 박 교수가 문자를 보낸 이유는 알콩달콩 살던 일리 부부에 대한 질투심과 바람난 여자에 대한 증오심 때문이었다. 아들의 조기 유학을 위해 함께 외국으로 갔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나서 아들을 혼자 돌려보냈던 것이다. 불륜에 대한 입장을 따지자면 일리의 마음보다 박 교수의 마음이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들의 마음과 더 인접한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희태 부는 바람기를 타고나서 40년 동안 희태 모인 고여사의 속을 썩이는 인물이다. 이들의 서사는 과거 시대 불륜 담론의 일반적인 귀결 중 하나인 회개와 용서를 통한 전통적 가족 이데올로기의 붕합을 보여준다.<sup>18)</sup> 희태 부가 뒤늦게나마 그 동안의 잘못을 뉘우치고 치매에 걸린 고 여사를 정성스럽게 보살핀다는 설정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 대가는 가혹하다. 치매에 걸린 고 여사는 남편을 알아보지 못하고 다른 남자를, 그것도 며느리가 바람을 피운 김 준을 남편이라고 착각하며 좋아하는 것이다.

이 드라마의 환유적 소비에서 또 한 축을 이루는 것은 이른바 '시월드(媿 World)'<sup>19)</sup>이다. 시월드는 결혼과 함께 며느리가 되어 시댁으로부터

18) 김영성, 『TV 드라마에 나타난 가족 해체 위기와 치유의 미학: 2000년대 이후 불륜 드라마를 중심으로』, 『비평문학』 57권, 한국비평문학회, 2015, 81쪽.

억압받는다고 느끼는 여자들이 억압하는 타자들의 세계로서 시택을 표상해 낸 말이다.<sup>20)</sup>

희수: 니 친정 식구들이랑 친구들이 나 욕하지? 바람둥이 시아버지에 스토키 시어머니, 개싸가지 시동생에 할 줄 아는 거라곤 숨 쉬고 똥 싸는 거밖에 없는 시누이. 콩가루 중에 콩가루지. 니 팔자도 참... (3화)

일리의 환상 속에서 희수가 하는 이 말은 일리의 시월드를 한마디로 대변하고 있는 대사이다. 일리는 바쁘게 일하는 틈틈이 집에 들러 희수를 돌보고, 시부모의 싸움을 말리고, 백수 시동생이 정신 차리고 일할 수 있도록 채근한다. 그러면서도 공을 인정받기는커녕 툭하면 무시당하기 일쑤이다. 이런 일리의 상황은 드라마를 보는 여자들의 상황, 더 나아가 한국 며느리들의 상황에 대한 환유로 읽힌다. 일리의 모습을 보며 여자들은 시택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야만 하고, 동시에 늘 정서적으로 학대를 받거나 마음에 상처를 받는 일들을 경험한다고 느끼는 자신의 상황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다.

일리의 시월드의 중심에는 희수가 있다. 희수는 7년 동안 눈만 깜빡이며 누워서 지낸다. 일리는 희수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보이며 헌신한다. 일리 없이는 희수의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이다. 여성 시청자들에게는 이 역시도 시택에 대한 막연한 희생과 봉사를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모든 수발을 들어야 하는 희수나, 희수를 돌보는 일리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시택 식구들의 모습은 명절마다, 혹은 가족의 대소사 때마다 며느리를 수족처럼 부리는 각자의 시택 식구들의 모습과 매우 인접해 있는 것이다.

19) 시월드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처럼 '시(媿)'자가 들어간 사람들이 사는 세상, 즉 시택을 말하는 인터넷 신조어 표현이다.

20) 이재현, 「이재현의 유행어사전-시월드」, 『한국일보』, 2015.9.22.

전체적으로 보면 이 드라마는 성장드라마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 드라마의 말미에 공방으로 찾아간 희태는 김 준에게 고맙다고 말한다. 그저 아내와 어머니로만 생각했던 사람들을 김 준으로 인해 ‘한 여자’, ‘한 인간’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그리고 그들이 겪은 일들이 누구나 한번쯤은 겪어야 할 통과의례라고 말한다.

희태: 우리 사이에 이런 말하면 미쳤냐고 남들은 비웃겠지만, 고맙다. 너 아니면 모르고 지나쳤을 많은 문제들. 일리도, 엄마도. 가족은 상처일 수도 있지만 언제나 가장 큰 위안이거든.

김 준: 관심 없습니다.

희태: 너 내가 왜 웃는지 모르지. 꼬소해서. 난 겪었고, 넌 겪을 테니까. 살면서 언젠가 한 번은. 수고해라. (20화)

그들을 성장시키고, 그래서 그들의 사랑을 일리 있게 만들어 준 통과의례는 생각보다 엄청난 것이었다. 희태, 일리, 김 준 그리고 주변 사람들 모두 마음에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다. 희태와 일리는 각자 죽음의 위기를 넘겼고, 희태의 부모는 치매라는 무거운 벌을 받았다.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빠졌던 남자에게 빠지는 웃지 못할 일을 경험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맞이하고서야 그들의 통과의례는 끝이 났다.

희태: (내레이션) 사랑한 후에는 어김없이 나이테 한 켠이 느껴는 법. 세상에 일리 없는 사랑이 있을까? 어떤 사랑에도 빠질 만큼 우린 연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깨어지고 부서지며 몇 뼘쯤 커버린 것 같다. 그래서일까. 어김없이 찾아온 봄날 햇볕 한 조각이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 (20화)

이렇게 드라마는 세상에 일리 없는 사랑이 없고, 그래서 이들의 사랑에도 일리가 있다고 말한다. 또 그렇게 사랑한 후에는 그만큼 성장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끝을 맺는다.

실제로 드라마 속 주인공들은 일련의 서사를 거치면서 모두 성장한 모습을 보여준다. 일리는 자신을 찾고, 벽화 페인팅에 관심을 가지면서 꿈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간다. 희태는 부모와 동생들에 대한 만아들로서의 책임감을 덜고, 자신과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일리에 대한 고마움과 부담감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과 일리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늘 혼자서 일하며 고독을 즐기던 김 준은 다른 사람들과 팀을 이뤄서 일할 수 있게 되었고, 어린 시절 자신을 버린 어머니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얻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 속 사랑이 비록 일리는 있을지언정, 그 사랑에 공감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한다. 이는 드라마가 환유적으로 불륜, 시월드 등 부정적인 의미에 초점을 두고 소비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리 있는 사랑을 통한 주인공들의 성장’이 현실에서의 각자의 성장에 대한 환유를 불러일으키는 데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이다.

#### 4. 드라마에 내포된 은유 읽기 - ‘출산성’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드라마의 서사는 어떤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적 요소들, 즉 불륜이나 시월드 같은 현실적인 것들과 매우 인접해 있다. 그런데 그 서사들을 담고 있는 언어의 심층을 들여다 보면 우리 사회의 본질적 측면에 대한 은유 역시 무게감 있게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은유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 이 드라마의 모든 서사는 ‘출산성’<sup>21)</sup>에

21) 레비나스는 ‘출산성(la fécondité)’을 남자와 여자의 성적 결합을 통한 임신과 출산의 가능성이라고 말한다. 강영안, 『타인의 얼굴-레비나스의 철학』, 문학과지성사, 2005,



대한 은유로 읽어낼 수 있다. 출산은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이는 생물학적인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존재론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이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 타자와 관계하고, '타자가 된 나'인 아이를 통해 비로소 자신이 존재하는 테두리의 한계를 초월하여 미래와 관계를 맺는다. 이러한 아이와의 관계, 미래와의 관계가 바로 '출산성'이다.<sup>22)</sup>

'출산성'은 드라마의 네 가지 주요 서사 모두를 관통하며 얽혀 있는 은유이다. 이렇게 작품의 부분이나 전체가 하나의 근원 영역이 되어, 목표 영역의 어떤 측면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은유를 거대한 연쇄 은유<sup>23)</sup>라고 부른다. 그리고 여기서 은유적 이해의 바탕이 되는 것은 '일반성은 개별성이다'라고 하는 일반 레벨의 은유이다.<sup>24)</sup> 다시 말하면 개별성을 지니는 서사가 인간 존재나 사물의 본질에 대한 일반성을 은유적으로

156-159쪽.

- 22) '출산성'('생산성', '출산' 등의 용어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음)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들을 함께 참조하였다. 엠마누엘 레비나스, 『시간과 타자』, 강영안 역, 문예출판사, 1996, 112-118쪽; 엠마누엘 레비나스, 『존재에서 존재자로』, 서동욱 역, 민음사, 2003, 212-215쪽; 서동욱, 『차이와 타자』, 문학과지성사, 2005, 316-325쪽.
- 23) 레이코프와 터너는 은유를 '근원영역'과 '목표영역'의 사상(寫像, mapping) 관계로 보았다. 즉 'A는 B이다'라는 은유는 곧 근원영역 B에 관한 지식 구조의 일부를 목표영역 A에 사상하여, B의 어떤 측면(혹은 여러 측면들)을 통해 A의 측면들을 이해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시 전체가 하나의 근원 영역이 되어 구체적인 것에 사상하는 경우를 '거대한 연쇄 은유'라고 하였다. 조지 레이코프·마크 터너, 『시와 인자-시적 은유의 현장 안내』, 이기우·양병호 역, 한국문화사, 1996, 148-177쪽.
- 24) 일반 레벨의 은유는 기본적인 개념적 은유를 말한다. 이는 어느 문화 구성원들에게 공유된 보편적인 개념 장치의 일부이다. "인생은 여행이다", "죽음은 출발이다" 같은 은유가 그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은유는 이해의 대상이 되는 영역과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영역 사이에 고정된 대응 관계가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은유를 바탕으로 결합, 확장, 구체화 이탈 등을 통해 새로운 은유가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내 마음은 호수요"는 "상태는 장소이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적 은유에서 출발한 것이다. 조지 레이코프·마크 터너, 『시와 인자-시적 은유의 현장 안내』, 이기우·양병호 역, 한국문화사, 1996, 76-77쪽, 211-216쪽.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우선 첫 번째 일리와 희태의 서사에서 보면, 두 사람이 주고받는 고백은 “사랑해.”가 아닌 “내가 지켜줄게.”이다. 이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연인, 혹은 남편과 아내로서의 자리가 아닌 보호자의 자리에 놓인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대사이다.

희태에게 일리는 처음에는 누이의 자리를 대신하는 존재이다. 당당하고 멋진 희수는 집안의 사랑스러운 딸이자 희태의 든든한 동생이었다. 공부만 하느라 사회 경험이 별로 없었던 희태가 여고에 임시교사로 갈 때도 제일 의지한 것이 희수였다. 희태는 당황스러운 일을 겪을 때마다 속으로 ‘희수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 거니?’ 하고 묻곤 했다. 그런데 학교에서 만난 엉뚱한 소녀 일리가 희태를 평생 지켜주겠다고 나선다. 그리고 희태의 결혼과 동시에 희수가 쓰러지자 그 자리가 자연스럽게 일리로 대체된 것이다.

은유적으로 보면 희수는 일리 자신을 의미한다. 당당하고 멋진 여성이었던 희수는 결혼 전부터 일리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일리와 희태가 결혼하여 신혼여행을 다녀오는 날, 샤워하다가 쓰러져 온 몸이 마비된 채 7년 동안 누워만 지낸다. 이는 곧 고등어처럼 펄쩍거리던<sup>25)</sup> 일리가 결혼과 함께 맞이한 일리다움의 마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희수는 일리의 환상 속에서만 움직이고 말할 수 있다. 희수로 대변되는 환상들은 일리의 욕망에 대해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것을 ‘추방’한다.<sup>26)</sup> 일리는 현실에서 억눌려 있던 욕망을 희수라는 환상을 통해 표현

25) 희태는 일리를 예민하고 섬세한, 그래서 잡히자마자 부패하기 시작하는 고등어에 비유하곤 했다.

26) “환상은 욕망을 표현하는 데 두 가지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 환상은 욕망에 관해 말하거나 명시하거나 보여줄 수 있다. 또한 환상은, 욕망이 문화적 질서와 연속성을

하고, 또 해소하는 것이다. 희수가 등장하는 환상 장면들은 이 드라마에서 영상적 요소가 가장 빛을 발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소설에서 글자를 통해 서술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축적이고 은유적으로 상황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언제나 일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당당하게 자신의 감정을 말하고, 때로는 서슴없이 직언을 날리는 희수는 일리의 또 다른 자아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다. 희수가 죽은 뒤에 희수의 침대에 누워 일리는 이렇게 중얼거린다. “내가 언니였네. 난 숨만 쉬고 살았어. 7년 동안. 내가 그렇게 살았네.”(18화)

첫 번째 서사에서의 희태와 일리의 결합에 대해 희태를 중심으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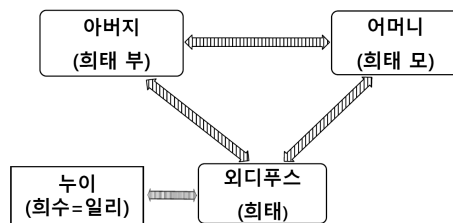


그림 1. 희태의 삼각형

이러한 상황은 일리를 중심으로 살펴봐도 비슷하다. 처음에 일리에게 희태는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하는 존재였다. 고교시절 일리는 사랑하는 아빠를 병으로 잃은 후 아버지가 남긴 말들을 붙잡고 그 속에서 살아가던 소녀였다. 그러다가 자신의 미래를 걱정해 주는 든든하고 멋진 선생님인 희태를 만나면서 죽은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위협하는 하나의 장애 요소일 경우에 그 욕망을 추방할 수 있다.” 로즈메리 잭슨, 『환상성-전복의 문학』,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옮김, 문학동네, 2001, 12쪽.

희태는 일리에게 아버지의 부재를 메워주는 존재였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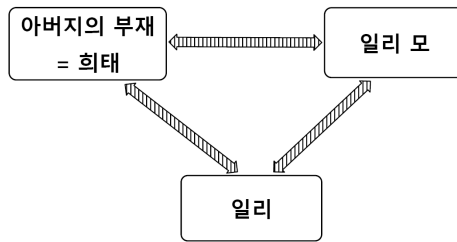


그림 2. 일리의 삼각형

첫 번째 서사에 내포되어 있는 이러한 삼각형들은 전파되고 재생산되는 수단을 전혀 갖지 못하는,<sup>27)</sup> 닫혀 있는 삼각형이다. 둘째 단계로 확대될 수 있어야만 이 형태의 전파가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서 희태는 누이가 아닌 다른 여자를 취하여, 그리고 일리는 아버지가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나서, 아들을 정점으로 하는 새로운 삼각형의 구별된 저변을 구성해야 한다. 드라마에서 이것을 가능하게 해 주는 존재가 바로 김 준이다.

일리와 김 준의 서사가 시작되는 3화의 제목은 ‘냄새’이다. 일리가 작업을 의뢰받고 김 준의 공방에 들어서는 순간, 김 준이 땀을 닦아서 던진 옷이 일리의 얼굴에 썩워진다. 그렇게 일리는 김 준의 냄새를 맡는다. 이때 희태의 내레이션이 흐르면서 이 장면이 지니는 은유적 의미를 환기시킨다.

27)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앙띠 오이디푸스-자본주의와 정신분열증』, 최명관 역, 민음사, 2000, 113쪽.

희태: (내레이션) 모든 것은 준비되어 있었다. 마치 그날을 위해 그랬던 것처럼. 늦가을치고는 더운 날들이 이어졌다. 아내는 낯선 남자의 냄새를 맡았다. 땀 냄새. 처음엔 불쾌했던 그 냄새가 아내는 자꾸 떠올랐다고 했다. 내가 바다 냄새에 취해있을 동안 아내는 낯선 냄새에 길들여져 가고 있었다.  
(3화)

이는 은유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출산성’의 시작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임신의 징후는 일반적으로 입덧과 함께 시작된다. 그리고 입덧을 심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각종 ‘냄새’이다.<sup>28)</sup> 임신한 여자는 예민해진 후각으로써 아기의 존재를 인식하며 엄마의 삶을 시작하게 된다.

3화 후반부에서는 김 준이 일리가 두고 간 스웨터의 냄새를 맡아본다. 여기서도 역시 희태의 내레이션이 이어진다.

희태: (내레이션) 내 아내의 냄새, 나만 아는 체취, 나만 아는 감촉. 나만 아는 무게감, 나만 아는 꼴통. 그 모든 것들은 당연히 나만의 것이다.

김 준 역시 냄새로써 일리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한다. 이는 뱃속에 있는 아기가 엄마를 인식하는 모습과 흡사하다. 임신 중기가 되면 태아의 콧구멍을 막고 있던 막이 삭아 없어진다. 그리고 태아가 양수를 들이마실 때 양수 안의 방향성 물질이 코 안의 후각 수용기와 만나게 된다. 이 때부터 아기들은 냄새를 통해 엄마를 알아내는 능력을 급속히 발달시킨다.<sup>29)</sup> 그래서 태아는 8개월부터 엄마의 냄새를 기억하고 태어나자마자 냄새로 엄마를 알아본다. 세상 모든 엄마를 다 데려다 놓아도 엄마를 찾아낼 수 있다.<sup>30)</sup>

28) 삼성출판사 편집부, 『임신 출산 신생아』, 삼성출판사, 2003, 22쪽.

29) 미셸 오당, 『출산 속에 숨겨진 사랑의 과학』, 장은주 역, 명진출판사, 2001, 114쪽.

30) 군터 몰 · 랄프 다비르스 · 스베나 니스킨 글, 에바 바겐드리스텔 그림, 『아기두뇌 읽기

이렇게 일리와 김 준의 서사는 서로의 냄새를 확인하면서 시작된다. 이는 환유적 측면에서 불륜으로만 읽혔던 일리와 김 준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요소이다.

또한 일리는 김 준과 일하면서 큰 폭의 감정 기복을 보이며, 쉽게 흥분하고 다시 차분해지기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역시도 여자들이 임신했을 때 자주 보이는 증상이다.

김 준: 없어요, 부모님. 대문 앞에 누가 버린 걸 주웠대요. 할아버지가.

일리: 할아버지가 투잡 뛰셨구나. 목수에다 어부까지. 할아버지가 그물로 끌어 올린 거잖아요.

일리: (김 준과의 대화를 회상하며 희수에게) 그잖아요. 그렇게 이쁜 아기를 누가 버려요. 황새가 물어다 줬거나 그물에 걸린 거지. (3화)

일리가 희수에게 김 준의 출생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 장면은 인상적이다. 여기서 일리는 김 준을 ‘황새가 물어다 준 아기’에 비유하고 있다. 이는 아이들의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라는 질문에 대해 한국 부모들이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고 얼버무리듯이, 서양 부모들이 비슷한 경우에 사용하는 말이다. 남녀의 성적인 결합을 숨기고 있기는 하지만 출산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다.

4회에서 일리는 김 준의 도발적인 행동에 당황하여 그의 눈 앞에서 쓰러진다. 희태를 구하며 대신 당했던 교통사고로 인해 생긴 과호흡증후군<sup>31)</sup>이 재발한 것이다. 이 역시 출산성에 대한 은유와 관계되어 있다.

』, 김시형 역, 교양인, 2008, 73-110쪽.

31) 호흡을 통해 이산화탄소가 과도하게 배출되어 동맥혈의 이산화탄소가 정상 범위 아래로 떨어지는 상태를 과호흡증후군이라 한다. 호흡량이 과도하게 늘어나 호흡곤란, 어지럼증, 실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젊은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나며,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도 통증이나 임신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다. 서울대학교병원, 『과호흡 증후군(hyperventilation syndrome)』,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http://terms.naver.com/>

이 증상은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도 임신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다. 또한 여자가 출산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호흡이다. 규칙적인 호흡을 유지하지 못하면 태아도 산모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과호흡으로 숨쉬기가 어려워진 일리는 김 준의 손을 끌어다 입을 막고 호흡을 조절한다. 그 순간의 느낌을 김 준은 “살아있다는 건 이런 거구나 그랬어요. 뜨겁고 간질간질하고, 절박하고, 깜짝 놀라게 하는 것. 그날부터 손바닥이 뜨거워요. 꼭 불에 덴 것처럼 뜨겁고 아파요.”(5화)라고 표현한다. 일리의 거친 호흡이 생명의 탄생에 대한 은유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희태가 일리와 김 준의 관계를 알게 되면서 세 번째 서사가 시작된다. 일리와 희태와 김 준이 얽히고설키며 엮어나가는 서사가 그것이다. 이 부분은 흔히 불륜, 외도, 삼각관계 등으로 환유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일리와 김 준의 관계는 불륜이나 외도라고 하기에는 지나칠 정도로 순수하다. 그들이 나누는 스킨십은 손에 크림 발라주기, 손잡기, 그리고 두 번의 키스가 전부이다. 이는 연인 관계에 있어서의 스킨십보다는 부모와 자식 간의 피부 접촉을 연상시킨다.

18화의 소재목은 ‘지붕’이다. 희태는 술을 마시고 집에 쳐들어 온 김 준을 하룻밤 재워서 보내기로 한다.

희태: (내레이션) 하룻밤 재운다는 걸 쉽게 생각했다. 아내와 나, 그리고 그 녀석, 한 지붕 아래에서 잠을 청한다. 그날 밤 나는 괴이한 꿈을 꾸었다.

희태는 김 준과 욕실을 같이 쓰고, 한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한 집에서 사는 꿈을 꾸다. 꿈에서 희태와 김 준은 일리를 두고 경쟁하는 듯 하면서도 일리의 사랑을 나눠 가지며 사이좋게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준

다. 한 지붕 아래 살며 아내와 어머니로 한 여자를 공유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임을 어렵지 않게 읽어낼 수 있다.

은유적 관점에서 보면 김 준은 일리의 출산으로써 태어난 일리와 희태의 아이라고 할 수 있다. 김 준이 등장함으로써 일리와 희태는 비로소 각자의 자리를 찾아가고, 아들을 정점으로 하는 새로운 삼각형을 구성하게 된다. 이는 다음 그림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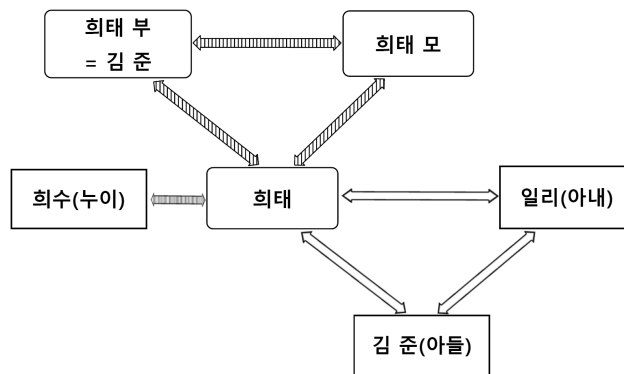


그림 3. 전파 가능한 삼각형으로의 확장

이 삼각형은 다시 다음 세대로 이어지면서 반복된다. 극중에서 희태 모는 치매에 걸린 후, 평생 바람을 피우며 마음고생을 시켰던 희태 부를 알아보지 못한다. 대신 김 준을 남편의 젊은 시절 호칭인 미스터 장이라고 부르면서 따른다. 이 에피소드로 인해 희태와 김 준, 일리의 삼각형은 순환, 반복되면서 재생산되는 구조를 획득한다. 김 준은 일리와 희태의 아들 자리에 위치해 있으면서 동시에 희태의 아버지 자리로도 대체되는 존재인 것이다.



이렇게 이 드라마는 출산성에 대한 은유를 담고 있다. 다만 드라마 속에서 실제적인 출산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사회의 현실과 관련 지어 생각해 보면 이는 곧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출산 기피 현상과 맥이 닿아 있다. 출산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만큼 출산이 어려워진 사회에서 출산의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음을 환기시킬 수 있는 은유인 것이다.

이상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드라마의 총체적 의미에 접근하기 위해서 출산성을 은유하고 있는 서사가 표면적으로는 불륜으로 환유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독자의 기호 작용은 은유의 근본적인 의미를 찾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이때 환유는 은유의 모태로서, 독자의 마음에서 어떤 은유가 하나의 의미 있는 기호가 되기 위해서 그 의미를 조달받을 근거는 환유이다.<sup>32)</sup> 그런데 이 드라마에 대해서는 대부분 환유적으로만 소비될 뿐 은유의 근본적인 의미를 찾는 방향으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하였다. 이를 통해 출산이라고 하는 은유적인 것으로부터 불륜이라고 하는 환유적인 것으로 도피하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유사성 장애(similarity disorder)<sup>33)</sup>의 징후를 읽어낼 수 있다.

본고에서는 드라마 〈일리 있는 사랑〉의 은유적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출산성’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드라마가 내포하고 있는 은유를 이 한 가지 측면으로만 고정시킬 수는 없다. 대부분의 드라마와 마찬가지로 이 드라마는 매 회 한 시간 씩 20회에 걸쳐 방송되면서 방대한 양의 서사를 그려냈다. 그 속에는 우리가 환유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수많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관점에 따라 달리 읽어낼 수 있는 다양한 은유들

32) 김경용, 『기호학의 즐거움』, 민음사, 2001, 174-175쪽.

33) 야콥슨은 유사성(은유적인 것)으로부터 인접성(환유적인 것)으로의 도피를 유사성 장애(similarity disorder)라고 지칭한다. 로만 야콥슨, 『문학 속의 언어학』, 신문수 역, 문학과지성사, 1989, 110-111쪽.

이 내포되어 있다. 예를 들어 에로티시즘이나 가족주의 등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이 드라마의 또 다른 은유들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 5. 결론

내용이나 장르는 다양하지만 드라마는 대체로 현실의 반영이다. 사람들은 드라마를 통해서 현실을 배우고 다른 삶을 들여다보고 간접적으로 체험해 보기를 원한다. 또한 사람들은 드라마를 통해서 희로애락을 느끼고 감정을 이입한다.<sup>34)</sup> 그래서 드라마 속 상황들은 사람들의 일상에 존재하는 특수한 상황들로 쉽게 옮겨가면서 환유되곤 한다.

그러나 드라마가 내포하고 있는 현실적이면서도 본질적인 의미를 제대로 읽어내기 위해서는 환유적 의미 못지않게 은유적 의미에도 주목해야 한다. 미디어의 담론은 대체로 그 미디어가 속한 사회 현상을 바탕으로 형성되며, 그것은 현실에 인접한 환유적인 의미를 거쳐 보다 근본적인 은유적 의미를 찾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드라마 〈일리 있는 사랑〉의 주요 서사는 일리와 희태의 서사, 일리와 김 준의 서사, 일리와 희태와 김 준의 서사, 일리와 시택 구성원들과의 서사 등 네 가지로 구분된다.

이들 주요 서사는 불륜과 시월드에 대한 환유로서 시청자들에게 소비되었다. 일리와 김 준의 서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부도덕한 만남들로 옮겨가면서 환유됨으로써 공감을 얻는 데 실패하였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일부일처제가 여전히 강력한 제도적, 윤리적 규범으로 존재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불륜 관계가 발생하는 것

34) 정수연, 『드라마 맛있게 읽기』, 복인, 2008, 21쪽.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일리와 시댁 식구들의 서사에서는 현실에서 결혼한 여지들을 억압하는 타자로서의 시대, 즉 시월드에 대한 환유를 읽어낼 수 있었다.

사실 이 드라마는 등장인물들이 통과의례라고 할 수 있는 일련의 서사를 거치면서 성장해 나가는 성장 드라마로서의 구성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주요 서사들이 불륜, 시월드 등의 부정적인 의미에 초점을 두고 소비됨에 따라 드라마 속의 사랑이나 성장담이 공감을 얻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서사들을 담고 있는 언어의 심층을 들여다보면 이 드라마의 서사들은 ‘출산성’에 대한 거대한 연쇄 은유를 담고 있다. 첫 번째 서사에서 일리와 희태는 처음에 서로의 누이나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하는 존재이다. 그러다가 일리가 김 준을 만나면서 상황이 달라진다. 일리와 김 준이 냄새로써 서로를 인식하는 모습, 일리가 보여주는 심한 감정의 기복, 일리의 과호흡증후군, 불륜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순수한 일리와 김 준의 관계 등은 모두 ‘출산성’에 대한 은유로 읽어낼 수 있는 부분이다. 즉 김 준이라는 존재는 일리의 출산으로 태어난 일리와 희태의 아이에 대한 은유이다. 김 준의 등장으로 일리와 희태는 비로소 남편과 아내로서의 자리를 찾고 김 준(아이)을 중심으로 하는 전파 가능한 두 번째 삼각형을 구성하게 된다.

드라마에서 출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출산성에 대한 은유는 우리 사회의 출산 기피 현상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불륜, 시월드 등의 환유로만 소비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출산성이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철저히 억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즉 이 드라마는 현대 사회에서 출산이 불륜이나 시월드 같은 인접한 다른 것들로 대체되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의미 있는 텍스트이다.

이 드라마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일리가 사람이라는 것, 즉 사람이 없는 사랑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타자로서 서로를 인정하고, 결합을 통해 하나가 아닌 진정한 둘이 됨으로써,<sup>35)</sup> 미래와 관계 맺을 수 있는 출산성도 가능해질 것이다.

이상으로 논의를 마치며, 드라마에 내포되어 있는 환유와 은유의 복합적 읽기를 시도한 본고의 논의가 드라마 속에 포함된 몇몇 소재들로 인해 잘 만들어진 드라마까지도 소비적 논란만으로 묻히곤 하는 지금의 분위기를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 더 나아가 인상 비평의 차원을 넘어서 드라마를 이해하는 방식에 변화와 발전을 불러오는 작은 단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35) 필리프 질리앵, 『노아의 외투-아버지에 관한 라캉의 세 가지 견해』, 홍준기 역, 한길사, 2000, 129-133쪽.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tvN 드라마 〈일리 있는 사랑〉 (총 20화)

### 2. 논문과 단행본

- 강영안, 『타인의 얼굴-레비나스의 철학』, 문학과지성사, 2005.
- 김경용, 『기호학의 즐거움』, 민음사, 2001.
- 김대행, 『방송의 언어문화와 미디어 교육』,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 김미라, 『멜로드라마 〈밀회〉의 코드 파괴(code-breaking)와 그 함의 ‘불륜’에 대한 재현 관습을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45집, 한국극예술학회, 2014, 307-339쪽.
- 김민주, 『2010 트렌드 키워드』, 미래의창, 2009.
- 김영성, 『TV 드라마에 나타난 가족 해체 위기와 치유의 미학: 2000년대 이후 불륜 드라마를 중심으로』, 『비평문학』 57권, 한국비평문학회, 2015, 61-86쪽.
- 김옥동, 『은유와 환유』, 민음사, 2004.
- 미디어기획팀, 『독특한 감성의 드라마 ‘일리 있는 사랑’에 관심 집중』, 『경향신문』, 2014.12.9.
- 삼성출판사 편집부, 『임신 출산 신생아』, 삼성출판사, 2003.
- 서동욱, 『차이와 타자』, 문학과지성사, 2005.
- 이다운, 『TV드라마와 내레이션』, 『한국극예술연구』 41집, 한국극예술학회, 2013, 319-344쪽.
- 이 선, 『출산 개념에 대한 철학적 비판과 대안-나의 과제는 “출산”을 탈인간화하고 그 다음 인간이 “출산”의 순수한 개념을 얻은 이후에 인간을 “출산화”하는 것』, 『동서철학연구』 67권, 한국동서철학회, 2013, 197-215쪽.
- 이재현, 『이재현의 유행어사전-시월드』, 『한국일보』, 2015.9.22.
- 이충현, 『성격의 비밀』, 더난출판사, 2008.
- 임지윤, 『벨리니 오페라 〈노르마〉의 극 중 인물 연구: 노르마의 아리아 분석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정수연, 『드라마 맛있게 읽기』, 복인, 2008.
- 군터 몰·랄프 다비르스·스베냐 니스킨 글, 에바 바젠드리스텔 그림, 『아기 두뇌 읽기』, 김시형 역, 교양인, 2008.

- 로만 야콥슨, 『문학 속의 언어학』, 신문수 역, 문학과지성사, 1989.
- 로즈메리 잭슨, 『환상성-전복의 문학』,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옮김, 문학동네, 2001.
- 마틴 에슬린, 『드라마의 해부-극작법 서설』, 원재길 역, 청하, 1987.
- 미셸 오당, 『출산 속에 숨겨진 사랑의 과학』, 장은주 역, 명진출판사, 2001.
- 엠마누엘 레비나스, 『시간과 타자』, 강영안 역, 문예출판사, 1996.
- 엠마누엘 레비나스, 『존재에서 존재자로』, 서동욱 역, 민음사, 2003.
- 조지 레이코프·마크 터너, 『시와 인지-시적 은유의 현장 안내』, 이기우·양병호 역, 한국문화사, 1996.
-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앙띠 오이디푸스-자본주의와 정신분열증』, 최명관 역, 민음사, 2000.
- 필리프 쥘리앵, 『노아의 외투-아버지에 관한 라캉의 세 가지 견해』, 홍준기 역, 한길사, 2000.

## Abstract

### Reading of Metonymy and Metaphor on TV Drama 〈Reasonable Love〉

Kim, Gum-Suk(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reflect the comprehensive meaning of a TV drama, 〈Reasonable Love〉 through the metonymic and metaphorical reading about the drama.

This dram is composed of 4 main epics: the epic about Il-li and Hui-tae, the epic about Il-li and Kim Jun, the epic about Il-li, Hui-tae and Kim Jun, and the epic about Il-li and her husband's family members. These main epics are consumed by TV viewers as a metonymy about unfaithfulness and one's husband's home. As the main epics focused on such negative meanings and were also consumed so, then the characters' love or growth story in the drama were hard to be sympathized and understood by TV viewers. However, such epics were also a great chain metaphor about the 'Fertility'. Seen from the metaphorical viewpoint, Kim Jun is Il-li and Hui-tae's child. In other words, due to the existence of Kim Jun, Il-li and Hui-tae eventually found their positions as wife and husband, respectively, and formed the second triangle to be delivered. In that there was not any birth in the drama, its metaphor about the 'Fertility' was a reflection on Korean society's phenomenon avoiding from giving a birth.

Seen through a complex reading of metonymic and metaphorical expressions, this drama was a meaningful text figuratively showing that giving a birth in modern society is being replaced with adjacent other things like a unfaithfulness or one's husband's home. So this dram delivers the message that a love without men is impossible and only when a couple admit each other and become a true two, then giving a birth will be possible to us. This thesis expects that the above discussion may become a small clue for changing and advancing people's ways appreciating dramas.

38 대중서사연구 제22권 2호

(Key Words: TV Drama, 〈Reasonable Love〉, Metonymy, Metaphor, Unfaithfulness,  
‘Fertility’)

논문투고일 : 2016년 4월 8일

심사완료일 : 2016년 5월 4일

수정완료일 : 2016년 5월 11일

게재확정일 : 2016년 5월 14일